

제3장 백제 시대

1. 백제의 건국 · 웅진시대의 보령

백제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가 남하하여 오늘날 한강유역의 하남 위례성에 정착한 후 마한의 소국 가운데 하나로 발전한 나라였다, 백제는 한강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의 군현을 막아내면서 성장하였다.

3세기 중엽 고이왕 때는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어서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는 백제는 마한의 나머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립하게 되었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오늘날의 경기·충청·전라도와 낙동강 중류지역 강원 황해도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건국 초기의 보령지역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백제의 영향권이 크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한 54국의 소국 중 하나로 독자적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4세기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비로소 한강유역에서 성장한 백제가 마한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령지역은 백제의 본격 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정책에 밀려 한강 유역에서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년) 대외 팽창도 위축되고 왕권도 약화되면서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6세기 초반 무령왕 때에 이르러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웅진 천도 이후에는 보령지역이 백제 중앙 통치의 보다 강력한 영향권에 들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는 기록이나 고고학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2. 사비시대의 보령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용이한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백제의 중흥을 시도하였다. 백제의 사비 천도는 6세기 초인 서기 538년의 일이었다. 사비로 천도한 성왕은 천도를 지지한 세력(사씨와 목씨)들을 중심으로 지배 세력을 재편하는 가운데, 왕권의 안정과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16관등제와 22부의 중앙관서를 정비하는 한편 왕도(王都)는 5부(五部)-5향(五巷)으로, 지방은 방(方)-군(郡)-성(城)·현(縣)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때 보령지역에는 2개의 현(縣)이 설치되면서 백제의 본격적인 중앙집권체제의 통제에 편입되게 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가림군(加林郡)의 영현으로는 마산현(馬山縣), 설림군(舌林郡)의 영현으로는 사포현(寺浦縣), 그리고 결기군(結己郡)의 영현으로는 신촌현(新村縣)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림군 영현인 마산현은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에는 오늘날의 남포면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같은 가림군 영현으로 기록된 대산현이 부여 홍산 지방으로 비정된다면 아마 오늘날의 미산면 주산면 일부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주산면 샷갯재 마을에 ‘마살미 [馬山岬] 모퉁이’라는 지명이 있고, 샷갯재 마을 뒷산의 운봉산을 일제시기에는 마산(馬山)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설림군은 오늘날 금강 유역의 서천군에 설치된 군현이고, 결기군은 오늘날 홍성군 결성 지방에 설치된 군현이어서 보령지역에 설치된 2개의 현은 각기 다른 2개의 군에 딸린 영현이었다.

웅천읍과 남포면을 중심으로 하는 보령 남부 일대는 백제의 사포현(寺浦縣)이었고, 북쪽인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일대는 신촌현(新村縣)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1) 사포현(寺浦縣)

사포현의 중심 치소는 오늘날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은 웅천천 하구로서 서해로 나가는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백제의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목적이 대외진출이 용이한 곳을 택한 것이고 이렇게 선택된 곳이 부여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곳에 사포현이 설치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백제시대에 대외 관문으로서 중요한 기능이 부여되고 있는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포현 치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성주사의 전신인 백제시대의 오합사(烏合寺)가 위치하고 있었다. 오합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으며, 성주사사적기에서는 성주사의 전신이 오합사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성주사지 발굴조사에서도 백제시대의 가람지와 유물이 확인되어 성주사사적기의 오합사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주사사적기에는 백제 혜왕의 아들 범왕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오합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성주선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의자왕 19년에 크고 붉은 말이 오합사에 나타나 밤낮으로 여섯 번이나 절을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의자왕 15년에 붉은 말이 북악(北岳)의 오합사에 나타나 울면서 절을 돌다가 수일 만에 죽었다고 하는 등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를 오합사와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다.

사적기의 기록대로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사찰이라면 사비 주변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인데도, 이곳 사포현의 한 장소에 세워진 것은 백제시대 이곳 보령 남부 지역이 백제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지역보다도 컸으며,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점이라든가 사당적 성격의 원찰이라든가 하는 점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 있는 호국사찰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백제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 징조들은 모두 사비도성 주변의 중앙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오합사 기록 이외에 지방에서 일어난 기록은 거의 없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이 사비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서해안 보령 지역의 사포현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백제시대 이 지역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때 오합사의 관문으로서 웅천천 하구의 포구가 사포로 불리면서 대외 통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서기에도 다음과 같은 오합사 관련 기록이 있다.

제명(齊明) 4년 백제가 신라를 토벌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말 한 마리가 오합사 사찰의 금당을 行道하기를 낮과 밤을 쉬지 않았다. 오직 풀을 먹을 때만 그쳤다 (百濟伐新羅還時馬自行道於寺金堂晝夜勿息唯食草時止).

이렇게 일본서기에 오합사 관련 기록이 나오는 것은 보령지역 오합사에 일본 승려들이 내왕하였거나, 아니면 오합사가 일본과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니 사포현의

대외 통로 역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사포현의 대외 통로는 웅천천 하구였다. 웅천천은 성주산과 부여군 외산면의 만수산에서 발원하여 감입곡류하면서 서해로 유입되는 36km에 이르는 하천이며, 이 시기 백제의 가장 큰 대외 통로인 금강과 가장 가까운 큰 하천이었으며, 금강 이외에는 사비도성과 가장 근접한 하천이었다. 이 웅천천 하구가 커다란 만구(灣口)를 이루어 대외 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백제의 대표적 대외 통로 역할을 하였던 금강을 수호하는 개념으로 금강 유역에 가림군을 설치하고, 그 가림군의 영현으로 오늘날 미산 주산 지역으로 추정되는 마산현을 설치한 것은 보령지역이 대외 통로 기능을 수호하는 지역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호국 사찰로서의 오합사의 중요성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오합사가 있던 곳이 백제의 북악(北岳)이었다는 점이다. 즉 삼국사기 의자왕 15년조에 <5월에 적색마가 북악의 오합사(烏唵寺)에 들어와 울면서 불사(佛寺)를 돌기 수일 만에 죽었다> 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오합사는 오합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악은 백제의 5악 중의 하나이다. 5악에 사찰을 건립하였다는 것은 신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도 백제의 국가적 진호(鎭護)를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5악의 하나인 북악에 오합사가 건립되었다는 것은 호국 사찰로서의 오합사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오합사는 사비시대의 백제 불교가 가지고 있던 국가 불교적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사찰이다.

3산 5악은 사비시대 이전의 백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사비시대 이후 백제가 처음 사전체제(祀典體制)를 정비한 것은 천도한 수도인 사비도성의 방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신라의 경우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고 있듯이 3산 5악의 성립은 국토의 경계를 뜻하는 한편 국토 방위 계획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수도를 지키는 3산과 국토의 사방을 보호하기 위한 5악의 성립은 사비 천도 및 도성 축조와 함께 성왕이 추진한 국토 재편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업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왕은 3산 5악에 호국사찰을 두어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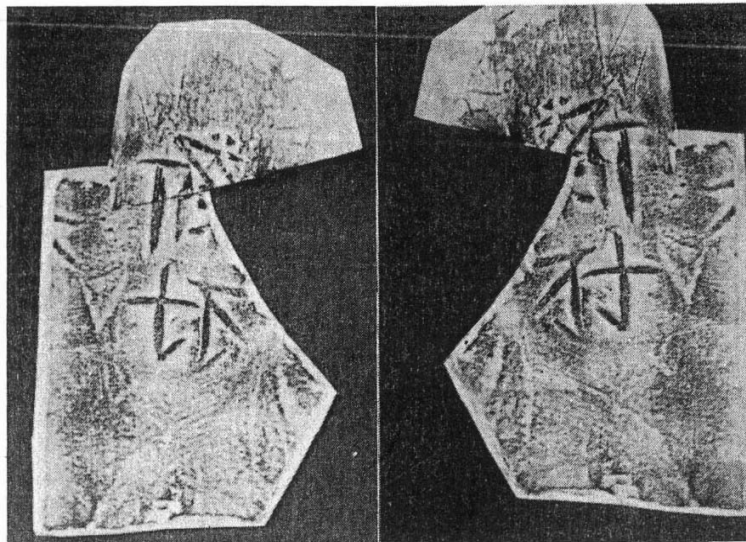
그러나 성왕이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자 일시 중단되었다가 그의 후손들인 위덕왕이나 법왕에 의해 그 의지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합사도 창건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백제시대 사포현 지역은 백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신촌현(新村縣)

백제시대 지방 제도 정비와 함께 보령의 북부 지역에는 결기군의 영현으로 신촌현이 설치된다. 신촌현의 중심지는 오늘날 보령시 주포면 읍내리 구성재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 구성재에서는 최근 ‘新村(신촌)’이라고 찍힌 백제시대 기와편이 수습되기도 하면서 각종 기록에 나오는 신촌현의 치소였음을 입증하였다.

신촌현을 거느렸던, 오늘날 홍성군 결성 지역의 결기군에 있었다고 기록된 오서산이 사비시대 이래 영산으로 알려져서 산악 숭배 신앙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오서산은 결기군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오늘날 홍성군 보령군 청양군의 경계에 위치하여 당시에 결기군에 딸린 신촌현에도 포함되고 있어 결기군편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산악숭배 신앙은 사비시대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지신(地神)과 관련된 여러 신앙체제가 오제(五帝) 또는 산악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新村이라 찍힌 기와(바르게 인화)

新村이라 찍힌 기와(거꾸로 인화)

주포면 보령리 田 560,561,562번지 구성재 출토

3) 백제시대 보령지역 산성·고분유적

보령지역에서 백제 시대 산성으로 비정되는 산성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보령 북부지역에서는 주포면 봉당리의 고남산성(봉당산성), 연지리의 아현산성, 보령리의 진당산성, 청라면 향천리의 향천리산성이 있다.

보령 남부지역에서는 남포면 제석리의 대봉산성, 달산리의 달산리산성, 웅천읍 수부리의 수부리산성, 대천리의 대천리산성, 성동리의 성동리산성, 주산면 창암리의 창암리산성, 황률리의 황률리산성, 삼곡리의 삼곡리산성 등이 있다.

이들 보령 남부지역의 산성 분포 패턴은 사포현 치소로 추정되는 웅천천 하류의 수안 마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대외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포현과 웅천천 하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보령지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백제 고분은 다음과 같다.

보령 북부지역으로는 오천면 갈현리 고분(80 여기), 주포면 보령리 고분(석실분 12기), 주포면 연지리 고분(석실분 4기), 청라면 장현리 고분(석실분 1기), 주교면 송학리 고분, 주교면 은포리 고분, 동대동 원평 고분(석실분 등 8기), 명천동 이천 고분(석실분 등 9기) 화산동 고분(2기)이 있다. 보령 남부지역으로는 성주면 성주5리 고분(백제고분 수십여 기), 웅천읍 노천리 고분(석실분 1기), 웅천읍 구룡리 고분(석실분 1기), 웅천읍 구룡리 차돌뱅이 고분(석실분 등 13기 이상), 웅천읍 관당리 고분(석실분 등 20여 기 이상), 미산면 봉성리 고분(석실분 등 20여 기), 미산면 대농리 고분(석실분 1기), 주산면 유곡리 고분(2기 이상), 주산면 신구리 고분(고분 7~8기), 주산면 창암리 고분(토광묘 1기)이 있다.

창암리 고분의 환두대도는 백제의 중앙 권력이 보령지역 토착세력가를 비호·통제하여 영향력을 확대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어 명천동 고분의 형식을 통하여 웅진천도 시기의 중앙세력에 의한 보령지역의 통제가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고, 보령리·장현리의 횡혈식 석실분은 사비시대 중앙의 통제가 강화된 사실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들과, 백제시대의 고분들은 보령지역이 해안가라는 사실 때문에 백제시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보령지역은 백제왕조의 해양을 통한 대외교섭 및 서해안 제해권 장악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백제 중앙정부는 보령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방 통제책을 강구·구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세기 후반대의 석실분에서 7세기까지의 석실분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은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중앙세력의 영향권 내지는 중앙세력의 진출이 계속되었고 이것이 사비시대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면서 보령지역의 중요성이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정운룡 「고분을 통해본 백제의 보령지역 지배」 2002.